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 비교 (I) - 인지도와 선호도를 중심으로 -

황혜인¹ · 김현아²

¹경남대학교 대학원 첨단공학과 식품영양전공

²경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of Native Local Foo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I)

- Focus on Recognition and Preference -

Hye-In Hwang¹ and Hyun-Ah Kim²

¹Department of Advanced Engineering, Graduate School and

²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as well as compare regional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cated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recognition score of overall native local food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 (9.43 out of 20 dishes for 254 students) and students in Jeolla (9.13 out of 20 dishes for 261 students). The recognition levels (4.88 out of 10 dishes) of native local foods in students in Gyeongsang-do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4.40 out of 10 dishes) in Jeolla-do ($P<0.001$). Second, the preference level (2.91 points) for native local food in students in Gyeongsang-do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2.72 points) in students Jeolla-do ($P<0.001$)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The preference level (3.03 points) of students in Gyeongsang-do for native local foo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2.80 points) of students in Jeolla-do ($P<0.001$)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In conclusion, students in Jeolla-do perceived native local foods in Jeolla-do and Gyeongsang-do impartially, whereas students in Gyeongsang-do perceived native local foods better. The overall sampl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red native local food in Gyeongsang-do to native local food in Jeolla-do. Thus,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enhance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in Jeolla-do, food culture and dietary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Key words: recognition, preference, native local foods, Gyeongsang-do, Jeolla-do

서 론

음식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명유지를 위한 절대적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오랜 세월이 걸쳐 자연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생활양식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문화로써 형성되었기 때문이다(1).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한 부분인 향토음식은 지역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 타 지역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맛과 형태를 지닌 음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향토음

식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음식으로써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정치·사회·문화적 여건 등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은 긴 역사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전된 향토음식의 큰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성의 차이에서 생겨난 음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 변동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변화되어 독특한 음식문화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각각의 음식문화가 모여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음식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2).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향토음식은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지역성·고유성 없이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재료나 종류의 수가 몇 가지 품목으로 한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토음식은 서서히 잊히고 우리 음식문화의 정체성 또한 희미해지게 될 것이라

Received 30 April 2014; Accepted 3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Hyun-Ah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Gyeongnam 631-701, Korea

E-mail: hakim@kyungnam.ac.kr, Phone: +82-55-249-2220

고 지적된 바 있다(3,4).

지금까지 향토음식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5-23)와 선호도(6,8,10-16,18,20-22)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선행 연구가 수행된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6,12,14), 경상도 지역(7-9,15,18,20-22), 제주 지역(11,23), 강원 지역(13,17), 충청 지역(10,19), 전국(16)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대체적으로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향토음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도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23)에서 농촌 학생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표하였을 뿐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별 비교를 실시한 연구는 전무하다.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8,11,15,20-22), 대학생(13,14), 성인(5-7,9,10,12,16,18,19,21)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23).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로 낮고 선호도가 낮게 조사되었다(11,14,15,20). 하지만 대체로 향토음식의 계승 및 발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토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활발한 영양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었다(6-8,10,11,14,15,18,23).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기가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에 대해 수행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와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는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원 소재 초등학생 300명과 전라북도 전주와 익산 소재 초등학생 3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각 학교에서 회수된 총 600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515부(경상도 지역 학생 254부, 전라도 지역 학생 26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지는 크게 향토음식의 인지도, 선호도 그리고 일반사항의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8,11,14-16,18,23-26)를 참고로 하여 향후 지역별 향토음식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에 적용 가능한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와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는 ‘보리고구마밥’, ‘두부떡국’, ‘버섯애호박볶음’, ‘나주곰탕’, ‘밤죽’, ‘수제비갈죽’, ‘굴떡국’, ‘파래된장국’, ‘미나리무침’, ‘콩나물잡채’이며,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는 ‘버섯밥’, ‘미역잡쌀수제비’, ‘재첩국’, ‘감자잡채’, ‘콩나물장조림’, ‘배추전’, ‘닭갈국수’, ‘애호박죽’, ‘따로국밥’, ‘동래파전’이다. 설문지에 선정된 향토음식의 이름과 설명을 제시한 후 각각의 향토음식에 대하여 인지도와 선호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지도는 명목 척도(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로 측정하였으며,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10개와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개 각각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1점, ‘모르고 있다’는 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총점: 0점~10점),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총점: 0~10점) 그리고 전체 향토음식(총점: 0~20점)에 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후 분석하였다. 선호도는 5점 척도(1점: 매우 싫어한다~5점: 매우 좋아한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그리고 전체 향토음식에 대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학년, 현재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의 3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ver. 20.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과 조사대상의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에 대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적 차이 분석을 위해 χ^2 -검증과 t-검증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조사대상자 표본 전체에서 남자 252명(48.9%), 여자 263명(51.1%)으로 조사되었고, 경상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남자 126명(48.3%), 여자 128명(50.4%), 전라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남자 126명(48.3%), 여자 135명(51.7%)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N (%)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χ^2
Gender	Male	252 (48.9)	126 (48.3)	126 (48.3)	0.091
	Female	263 (51.1)	128 (50.4)	135 (51.7)	
Grade	Fourth grade	172 (33.4)	80 (31.5)	92 (35.2)	3.637
	Fifth grade	175 (34.0)	81 (31.9)	94 (36.0)	
	Sixth grade	168 (32.6)	93 (36.6)	75 (28.7)	
Residence period	Less than 10 years	176 (34.2)	84 (33.1)	92 (35.2)	0.271
	More than 11 years	339 (65.8)	170 (66.9)	169 (64.8)	
			Mean±SD		t-value
Average (yrs)		9.68±3.52	9.66±3.72	9.70±3.33	0.115
Total		515 (100)	254 (100)	261 (100)	

로 두 지역 모두 전체 표본과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표본 전체에서 4학년 172명(33.4%), 5학년 175명(34.0%), 6학년 168명(32.6%)으로 나타났고, 경상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4학년 80명(31.5%), 5학년 81명(31.9%), 6학년 93명(36.6%), 전라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4학년 92명(35.2%), 5학년 94명(36.0%), 6학년 75명(28.7%)으로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조사대상자 전체에서는 10년 이하 176명(34.2%), 11년 이상 339명(65.8%)으로 평균 9.68년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10년 이하 84명(33.1%), 11년 이상 170명(66.9%)으로 평균 거주기간 9.66년, 전라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10년 이하 92명(35.2%), 11년 이상 169명(64.8%)으로 평균 거주기간 9.70년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있어서도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 향토음식의 인지도 비교

경상도 향토음식 10가지와 전라도 향토음식 10가지에 대한 인지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제시하였

Table 2.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native local foods of Gyeongsang-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Unit: N (%)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χ^2
Beoseotbap	Don't know	243 (47.2)	126 (49.6)	117 (44.8)	1.180
	Know	272 (52.8)	128 (50.4)	144 (55.2)	
Miyeokchapssalsujebi	Don't know	289 (56.1)	107 (42.1)	182 (69.7)	39.836***
	Know	226 (43.9)	147 (57.9)	79 (30.3)	
Jeacheopguk	Don't know	274 (53.2)	109 (42.9)	165 (63.2)	21.317***
	Know	241 (46.8)	145 (57.1)	96 (36.8)	
Gamja japchae	Don't know	246 (47.8)	118 (46.5)	128 (49.0)	0.345
	know	269 (52.2)	136 (53.5)	133 (51.0)	
Kongnamul jangjolim	Don't know	276 (53.6)	135 (53.1)	141 (54.0)	0.039
	Know	239 (46.4)	119 (46.9)	120 (46.0)	
Baechujeon	Don't know	241 (46.8)	116 (45.7)	125 (47.9)	0.256
	Know	274 (53.2)	138 (54.3)	136 (52.1)	
Dalk kalguksu	Don't know	238 (46.2)	124 (48.8)	114 (43.7)	1.369
	Know	277 (53.8)	130 (51.2)	147 (56.3)	
Aehobakjuk	Don't know	214 (41.6)	104 (40.9)	110 (42.1)	0.076
	Know	301 (58.4)	150 (59.1)	151 (57.9)	
Ttaro gukbap	Don't know	299 (58.1)	145 (57.1)	154 (59.0)	0.194
	Know	216 (41.9)	109 (42.9)	107 (41.0)	
Dongrae pajeon	Don't know	317 (61.6)	144 (56.7)	173 (66.3)	5.003*
	Know	198 (38.4)	110 (43.3)	88 (33.7)	
Total		515 (100)	254 (100)	261 (100)	

*P<0.05, ***P<0.001.

Table 3.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native local foods of Jeolla-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Unit: N (%)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χ^2
Bori gogumabap	Don't know	280 (54.4)	147 (57.9)	133 (51.0)	2.482
	Know	235 (45.6)	107 (42.1)	128 (49.0)	
Dubu tteokguk	Don't know	340 (66.0)	165 (65.0)	175 (67.0)	0.250
	Know	175 (34.0)	89 (35.0)	86 (33.0)	
Beoseot aehobak bokkeum	Don't know	280 (54.4)	152 (59.8)	128 (49.0)	6.052*
	Know	235 (45.6)	102 (40.2)	133 (51.0)	
Najugomtang	Don't know	268 (52.0)	135 (53.1)	133 (51.0)	0.248
	Know	247 (48.0)	119 (46.9)	128 (49.0)	
Bamjuk	Don't know	358 (69.5)	167 (65.7)	191 (73.2)	3.355
	Know	157 (30.5)	87 (34.3)	70 (26.8)	
Sujebipakjuk	Don't know	248 (48.2)	151 (59.4)	97 (37.2)	25.604***
	Know	267 (51.8)	103 (40.6)	164 (62.8)	
Gultteokguk	Don't know	351 (68.2)	153 (60.2)	198 (75.9)	14.482***
	Know	164 (31.8)	101 (39.8)	63 (24.1)	
Parae doenjangguk	Don't know	338 (65.6)	171 (67.3)	167 (64.0)	0.636
	Know	177 (34.4)	83 (32.7)	94 (36.0)	
Minari muchim	Don't know	195 (37.9)	106 (41.7)	89 (34.1)	3.187
	Know	320 (62.1)	148 (58.3)	172 (65.9)	
Kongnamul japchae	Don't know	227 (44.1)	110 (43.3)	117 (44.8)	0.121
	Know	288 (55.9)	144 (56.7)	144 (55.2)	
Total		515 (100)	254 (100)	261 (100)	

* $P < 0.05$, *** $P < 0.001$.

다. 우선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2), 경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미역잡쌀수제비($P < 0.001$), 재첩국($P < 0.001$), 동래과전($P < 0.05$)을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인지도 차이 분석 결과(Table 3), 전라도 지역 학생이 경상도 지역 학생보다 버섯애호박볶음($P < 0.05$), 수제비팔죽($P < 0.001$)을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굴떡국($P < 0.001$)은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분류되나 경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 지역이 전라도는 내륙지방, 경상도는 해안지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향토음식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어 향토음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도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지역과 조사대상의 범위를 넓혀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 고찰을 실시하였다.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3) 결과에 의하면 제주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음식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 지역 일부 중학생의 제주 지역 향토음식의 인지도 조사(11)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에 대해 3점 만점 중 2점대 이상의 점수를 나타

내었다. 부산·경남 향토음식 71종에 대해 부산 거주 일부 고등학생의 인지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한 항목은 총 20종으로 28.2%를 나타내어 인지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2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북 지역 향토음식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서도 5점 척도 기준으로 대부분의 메뉴가 1~2점대의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즉 조사대상의 연령, 지역에 따라 향토음식의 인지도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인지도 수준보다 본 연구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는 성인(14) 및 청소년(11,20)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상용화된 향토음식도 함께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항목은 단체급식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그리고 지역적 차이가 뚜렷한 상용화되지 않은 음식을 선정하여 선행 연구들보다 더 낮은 인지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토음식에 대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적 차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향토음식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0점, 알고 있다 1점으로 하여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10개와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개 각각에 대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Table 4).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20점 만점 기준으로 9.28점이었으며, 경상도 지역 학생(9.43)과 전라도 지역 학생(9.13) 간의 유의적인 차이

Table 4.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overall native local foods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N=515)	Students in Gyeongsang-do (N=254)	Students in Jeolla-do (N=261)	t-value
Recognition of native local foods in Gyeongsang-do ¹⁾	4.88±2.52	5.17±2.43	4.60±2.58	-2.547*
Recognition of native local foods in Jeolla-do ¹⁾	4.40±2.71	4.26±2.73	4.53±2.69	-1.108
t-value	5.145***	6.840***	0.568	
Recognition of overall native local foods ²⁾	9.28±4.79	9.43±4.73	9.13±4.86	-0.707

* $P<0.05$, *** $P<0.001$.¹⁾Mean±SD, total score: 10 (the total score of regional 10 native local foods was based on 2 scale test; 0, don't know; 1, know).²⁾Mean±SD, total score: 20 (the total score of 20 native local foods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was based on 2 scale test; 0, don't know; 1, know).

는 없었다. 즉 조사대상 학생들은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의 지역별 차이 없이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 수준이 절반 이하였으며 향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 각각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88점(10점 만점 기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40점(10점 만점 기준)이었다.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이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되고 있었다($P<0.001$). 즉 전체 표본 학생들은 전라도 향토음식에 비해 경상도 향토음식을 더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학생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로 전체 표본 조사대상을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향토음식을 지역에 따라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5.17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26점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을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반면 전라도 지역 학생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60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53점으로 전라도 지역 학생은 두 지역 향토음식의 인지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전라도 지역 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해 별

다른 차이 없이 고르게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상도 지역 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에 비해 경상도 향토음식을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향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분석으로 향토음식을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지역별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서는 경상도 지역 학생(5.17점)이 전라도 지역 학생(4.6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전라도 향토음식에서는 경상도 지역 학생(4.26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4.53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도 향토음식의 경우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이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전라도 향토음식의 경우에는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인지도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은 지역의 구분 없이 향토음식에 대하여 골고루 인지하고 있는 반면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보다는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하여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상도 지역 외 다양한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지역별 향토음식의 선호도 비교

경상도 향토음식 10가지, 전라도 향토음식 10가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각각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경상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버섯밥($P<0.01$), 미역참쌀수제비($P<0.001$), 재첩국($P<0.01$), 감자잡채($P<0.01$), 배추전($P<0.01$), 애호박죽($P<0.01$)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Table 5. Comparison of preference on native local foods of Gyeongsang-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t-value
Beoseotbap	2.71±1.08	2.83±1.03	2.59±1.13	-2.61**
Miyeokchapssalsujebi	3.11±1.08	3.40±1.00	2.84±1.09	-6.15***
Jeacheopguk	2.67±1.07	2.80±1.06	2.54±1.07	-2.68**
Gamja japchae	3.22±1.04	3.36±0.93	3.08±1.11	-3.03**
Kongnamul jangjolim	3.00±1.08	3.08±0.97	2.93±1.18	-1.60
Baechujeon	2.72±1.07	2.87±1.03	2.56±1.10	-3.30**
Dalk kalguksu	3.36±1.09	3.40±1.01	3.33±1.16	-0.79
Aehobakjuk	2.59±1.08	2.72±1.11	2.46±1.04	-2.71**
Ttaro gukbap	3.13±1.15	3.17±1.08	3.08±1.22	-0.91
Dongrae pajeon	2.68±1.03	2.76±1.03	2.60±1.02	-1.75

* $P<0.05$, ** $P<0.01$, *** $P<0.001$.¹⁾Mean±SD, 5-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5: like very much).**Table 6.** Comparison of preference on native local foods of Jeolla-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t-value
Bori gogumabap	2.84±1.06	2.89±1.01	2.80±1.10	-0.95
Dubu tteokguk	2.95±1.09	2.89±1.03	3.00±1.16	1.14
Beoseot aehobak bokkeum	2.51±1.11	2.60±1.05	2.43±1.16	-1.81
Najugomtang	3.00±1.17	3.13±1.14	2.87±1.18	-2.55*
Bamjuk	2.63±1.01	2.74±0.95	2.53±1.06	-2.38*
Sujebipakjuk	3.02±1.16	2.91±1.09	3.12±1.21	2.06*
Gultteokguk	2.41±1.11	2.45±1.14	2.36±1.09	-0.91
Parae doenjangguk	2.42±1.04	2.43±1.06	2.42±1.02	-0.04
Minari muchim	2.63±1.12	2.77±1.09	2.50±1.13	-2.80**
Kongnamul japchae	2.81±1.10	2.90±1.04	2.71±1.15	-1.96

* $P<0.05$, ** $P<0.01$.¹⁾Mean±SD, 5-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5: like very much).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Table 5). 전라도 향토 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지역적 차이 분석에서는 수제비팔죽($P<0.05$)은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이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나주곰탕($P<0.05$), 밤죽($P<0.05$), 미나리무침($P<0.01$)은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이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점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낸 경상도 향토음식은 닭갈국수(3.36), 감자잡채(3.22), 파로국밥(3.13), 미역참쌀수제비

(3.11)였으며, 전라도 향토음식은 수제비팔죽(3.02), 나주곰탕(3.00)이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다른 향토음식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인 향토음식을 위주로 학교급식에 시범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음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경상도 향토음식, 전라도 향토음식 그리고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지역적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82점

Table 7. Comparison of preference on overall native local foods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N=515)	Students in Gyeongsang-do (N=254)	Students in Jeolla-do (N=261)	t-value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 in Gyeongsang-do ¹⁾	2.91±0.67	3.03±0.63	2.80±0.69	-4.10***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 in Jeolla-do ¹⁾	2.72±0.72	2.77±0.69	2.67±0.76	-1.52
t-value	9.843***	9.507***	4.630***	
Preference of overall native local foods ¹⁾	2.82±0.66	2.90±0.62	2.74±0.69	-2.92**

*** $P<0.01$, **** $P<0.001$.¹⁾Mean±SD, 5-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5: like very much).

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표본 학생의 지역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상도 지역 학생 2.90점,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2.74점으로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의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선호도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전체 표본 학생들의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91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72점으로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즉 전체 표본 학생들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보다는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이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보다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첫 번째로 전체 표본 조사대상을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향토음식을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3.03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7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80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6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즉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과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 모두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분석으로 향토음식을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상도 향토음식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3.03점)이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2.8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전라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 경상도 지역 학생(2.77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2.67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역별 구분 없이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보다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이 좀 더 대중적으로 친숙한 메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에서 경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높게 조사된 것은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이 경상도 향토음식을 전라도 향토음식에 비해 좀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조사대상의 범위를 넓혀 선행 연구 결과의 비교 고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안동 지역 청소년(15)과 제주 지역 청소년(11)을 대상으로 한 향토음식의 선호도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음식에 대해 5점 만점 중 전체적으로 3점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대구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는 5점 척도로 조사한 대부분의 메뉴가 3~4점대의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즉 조사대상의 연령 및 지역에 따라 향토음식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지역별, 대상의 연령별 선호도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8)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 특히 집에서 자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선호도가 낮게 조사된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과의 식사에서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거주 지역별(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차이를 분석하고 동시에 지역별 향토음식(경상도 향토음식, 전라도 향토음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라도 지역 일부 소재 초등학생 261명과 경상도 지역 일부 소재 초등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9.28점(20점 만점 기준)이었으며,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에서 경상도 지역 학생(9.43)과 전라도 지역 학생(9.13)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88점(10점 만점 기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40점(10점 만점 기준)으로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은 두 지역 향토음식의 인지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을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P < 0.001$). 경상도 향토음식의 경우 경상도 지역 학생(5.17점)이 전라도 지역 학생(4.6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P < 0.05$), 전라도 향토음식에서는 경상도 지역 학생(4.26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4.53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82점(5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 2.90점,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2.74점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의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1$). 전체 표본 학생들의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 분석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91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72점으로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전라도 지역 학생($P<0.001$)과 경상도 지역 학생($P<0.001$) 모두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에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의 경우 경상도 지역 학생(3.03점)이 전라도 지역 학생(2.8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P<0.001$), 전라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의 경우 경상도 지역 학생(2.77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2.67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의하면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 간에 향토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차이를 보여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우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경상도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방의 향토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 모두에서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REFERENCES

- Gwangju Folk Museum. 2009. *The Korean food*. Gwangju Folk Museum, Gyeonggi-do, Korea. p 119, 299-314.
- Jung NW, Cha KH. 2007. *The local food*. Kyomunsa, Gyeonggi-do, Korea. p 17-21, 26-27, 107-108, 147-148.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8. *Korean traditional local foods 8: Gyeongsangbuk-do*. Kyomunsa, Gyeonggi-do, Korea. p 3-6, 32-35.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0. *Korean food and health*. Kyomunsa, Gyeonggi-do Korea. p 142, 245.
- Kim EY.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knowledge sharing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foodservice enterprise. *MS Thesis*. Kyunggi University, Suwon, Korea. p 45-46, 51-55, 87-93.
- Kim IS, Choi O, Yu HH, Shin MG. 2007. Recognition of native local foods in the Jeonju area of Korea by adul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7: 765-779.
- Park GT. 2011.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wareness of native local foods: centering around Gimhae, Gyeongnam province. *Korean J Food Cookery Sci* 17: 98-110.
- Park BH. 2004.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on Korean food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imje. *M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p 15-16, 22, 43-46, 49-55.
- Park SS. 2004. A verification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recognition of native cuisine: with respect to Hadong-gun area, Kyungsangnam-Do. *MS Thesis*. Gyeongju University, Gyeongju, Korea. p 70-72, 75-78.
- Park YS. 2006.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tradition foods. *MS Thesis*.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p 49-51.
- Shin JH. 2009. An analysis of students' recognition and acceptance for traditional food and local food at middle school in Jeju. *M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p 57-58, 72-74, 80-87.
- Shim SA. 2003. A study on awareness and preference of regional food by housewives in Naju area. *M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p 92-95.
- Shim SH. 2011.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for traditional local foods in Gangwon-do: the case of university students in Yeongdong area, Gangwon-do. *M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p 84-88.
- Yang HS, Rho JO. 2005. Recognition and preference native local foods by university students in Chonbuk area. *J Korean Home Economics* 43: 49-58.
- Lee GJ. 2002. A study on awareness and preference of Andong regional food by Andong teenagers.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 78-81.
- Lee SJ. 2005.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local foods.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 52-54, 60-68.
- Lee YH. 2009. A study on local food awareness in Gangwon province. *M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 68-72.
- Lee JH. 2011. A study on the preference and recognition regarding traditional local food of Daegu. *M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 45-46.
- Jeon HJ. 2008. Awareness of Seosan traditional local dishes.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 45-47.
- Jung SH. 2009.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som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using in school meal service concerning Busan, Kyengsangnamdo local foods. *M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 58-60, 68-72.
- Ha MO. 2006.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inhabitants for local foods in Ulsan area. *M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p 84-92.
- Hong KH. 2010. Recognition and preference for local food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Ulsan area. *M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p 84-89.
- Jin SS, Kim HS. 2012. A study on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native local foods in Jeju.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8: 165-192.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0. *The dictionary of traditional local foods*. Kyomunsa, Gyeonggi-do, Korea. p 171, 385.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 *Good food for food service: taste travel with local food*. Modern Plus, Gyeonggi-do, Korea. p 14-17, 22-29, 52-63, 72-87, 106-117, 140-147, 176-179, 182-185, 190-193.
-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07. *Standardized recipe for institutional foodservic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Seoul, Korea. p 320-321.